전통시장 '여성 상인'으로 산다는 것

광주여성가족재단의 '광주여성생애 구술사 사업2' 전통시장 여성상인 편에 참여한 구술자들. 왼쪽부터 박금자, 한순덕, 문경자 씨. 〈광주여성가족재단 제공〉

광주여성재단 구술채록담 '시장은 나의 힘' 발간…두번째 아카이빙
5개 시장 상인 6명 발굴…50여년 세월 고군분투 상인 여성사 기록

"우리 애기 아빠는 요령이 없어갖고 장사를 좀 못해, 호인(好人)이어가지고. 장사는 좀 뭐랄까? 기술이 있어야제. 장사도 아무나 한 거 아니제. 근데 지금 애들은 다 성격이 낫낫해갖고(상냥해서) 잘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45년간 대인·서방 시장에서 의류판매업에 종사해온 한순덕씨는 광주 시장역사의 산 증인이다. "내가 사라져도 시장은 영원하길 바란다"는 한 씨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한 같은 게 서려 있다. 알고 보니 대인시장 입주작가에게 판소리를 배워 전국 국악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 김경례)이 최근 전통시장 여성상인들의 구술채록담을 담아낸 '시장은 나의 힘'을 발간했다. 2021년부터 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아카이빙 사업의 두 번째 결과물이다.

재단은 모집공고를 통해 광주 5개 시장의 상인 6인을 발굴했다. 앞서 언급한 한순덕씨를 비롯해 박수복(양동시장, 식당), 박금자(서방시장, 방앗간), 구순자(남광주시장, 수산업), 정명순(양동시장, 한복), 문경자(말바우시장, 과일노점상)씨가 그 주인공으로 이들은 62~81세에 장사경력도 32~54년에 달한다.

구술사 기록은 아래로부터 솟는 역사라 할 수 있다. 가부장제의 권위의식 속에서 여성 삶의 기록은 그동안 주류에서 밀려 나 있었다. 이번 작업은 기존의 위계구조를 타파하는 대안적 탐구라 할 수 있다.

재단은 변두리의 여성사를 기록하기 위해 2021년 구술채록단을 꾸렸다. 지난 2022년 6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시장의 지역사적 의미, 구술채록 실습 등을 교육했으며 이를 통해 김강현, 이정선, 임미숙, 장상은, 정현아, 조경미 씨가 구술채록사업 필진으로 참여했다. 사진과 영상 촬영에는 영상기획 전문가인 육수진 감독이 힘을 보탰다.

구술 작업은 상인들의 목소리를 수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장의 철학적, 문화유산적 담론까지 포괄한다. 이번 책은 1970년 격동기부터 90년대 시장 쇠락기에 이르는 상인 여성사를 담고 있다. 생계를 위해 고투해 온 삶 속에 드리워진 여성상인들의 삶의 철학까지도 엿볼 수 있다.

1943년 나주 금천면 신천리에서 태어난 박수복 씨는 1950년 한국전쟁 때 빨치산에 시달리다가 광주에 터를 잡았다. 이후 방직공장에 취업했으며 27세에는 전남여고 앞에서 호떡과 튀김 장사를 시작했다.

이후 박씨는 양동시장에 터를 잡고 지금까지 54년간 생계를 꾸렸다. 아동복 장사에서 천 원 백반 식당까지 업종을 확장한 박씨는 "새벽에 세 시나 네 시 되면은 시골 섬에서 김 갖고 오는 장사들이 나를 깨웠다"며 "막 문을 뚜드려 깨우면서 밥 주라고, 글믄 또 그때 인나서 밥하고 나물 삶고 해서 무쳐서 밥을 해서 줬지. 빼(뼈)가 노그라지게 장사했지"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금이 내 인생에서 꽃피는 봄날"이라고 말했다.

남광주시장에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구순자씨는 당초 운동특기 장학생으로 순천여고에 입학했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부모님 가게를 맡아 수산업과 연을 맺었다. 수협 중매인인 남편을 만나 22세에 결혼한 구씨는 수산 점포를 개업 후 남광주시장 상인회장까지 역임할 정도로 부지런한 삶을 살았다.

장터를 찾는 손님들의 발길을 붙들기 위한 이들의 경험담은 단순한 상행위를 넘어 잔잔한 여운마저 느끼게 한다. 말바우시장의 문경자씨는 "발 시려워 떠는 이가 시장을 지나가면 양말 하나, 참외 몇 개 주는 기쁨을 느꼈다. 눈에 띄는 대로 양말 한 커리(켤레) 신겨 주면 너무 행복했다"며 지난 시절을 회고했다.

그러면서 "여기 있으면 '원숭이 구경'을 따로 갈 필요가 없다. 오만 것들을 다 보는 시장은 내가 여왕이 되는 삶의 놀이터"라며 미소를 지었다.

책은 시장에 진입하게 된 계기부터 업종별 노동경험, 시장별로 상이한 상업행위 특성 등도 담았다. 무엇보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고충과 시장 고유의 공간성에 주목했다. 특히 스스로 체득해 낸 장사의 방법론을 인생사와 연결한 점이 눈길을 끈다.

책에는 '전 생애의 서사를 통해 의미를 포착하는 작업'이라는 구술사의 의미가 오롯이 투영돼 있다. 여성들이 쇠잔하는 광주 시장사를 지탱하는 보가 돼 광주역사의 또 다른 한페이지를 장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김경례 대표이사는 "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구술자분들과 채록단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해야 할 광주여성들의 활동과 삶을 시민과 함께 역사로 만드는 작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무료로 배포. 책을 받아보려면 재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전국애송시낭송대회 광주 김윤선씨 대상

서구문화원 주관…정일근 시인의 '날아오르는 산' 낭송

제20회 전국애송시낭송대회에서 광주 출신 김윤선〈사진 오른쪽〉씨가 대상을 차지했다. 김윤선씨는 정일근 시인의 '날아오르는 산'을 낭송했다.

이번 제20회 전국애송시낭송대회는 지난 23일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개최됐으며 서구문화원이 주최·주관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낭송가들은 그동안 준비한 시 한 편을 들고 열띤 경연을 펼쳤으며 3시간 동안 진행된 낭송대회에서 김윤선 씨가 대상을 수상했다.

금상에는 이기철 시인의 '삼동편지'를 낭송한 경북의 배근정 씨, 은상에는 정일근 시인의 '어머니의 그릇'을 낭송한 경남의 김옥란 씨, 신석정 시인의 '한라산은 서서'를 낭송한 광주의 박영미 씨가 각각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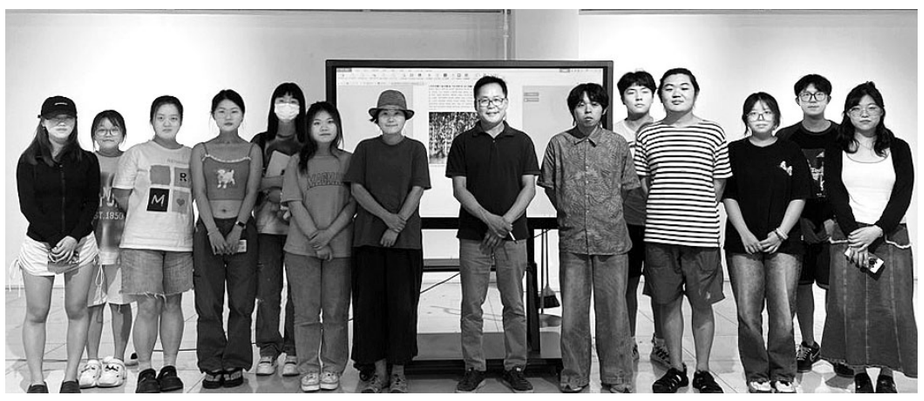
시낭송대회와 함께 부대 행사로 2022년 대상 수상자 박복숙 씨의 시낭송과 광주재능시낭송협회 전경숙 외 4인의 시 퍼포먼스, 제2회 전라도사투리말하기 대회 대상 수상자인 김인자 씨의 사투리 공연, 서구문화원 '시공감' 동아리의 서정희 외 6인의 '사람 그리고 사람'의 주제로 시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근모 광주문인협회장은 "전체적으로 참가자들의 암기 수준이 좋았다. 하지만 이번 대회 참가자들 가운데 많은 분들의 낭송 리듬이 일률적이었다"면서 "시낭송을 통해 듣는 이의 공감력을 더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상연 작가, 텐진 미술대학서 특강

판화·뉴미디어 예술분야 활약…인쇄의 현대성 의미 공유



전통적인 판화에서부터 뉴미디어까지 다양한 작업을 펼치고 있는 김상연 작가가 중국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인쇄에 대해 강의를 진행해 눈길을 끈다. 〈사진〉

김상연 작가는 오는 28일까지 중국 텐진미술대학에서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인쇄의 현대성'을 강연한다.

이번 강의는 중국 텐진미술대학 실험예술학과에서 다양한 전공 개발 및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외 유명 전문가, 학자 및 대학과의 교류를 위해 기획됐다.

텐진미술대학은 현재의 예술교육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학문적 연구의 확장을 기대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해왔다. 실험예술학과는 독일 루트비히 미술관, 미국 뉴욕필름아카데미 등과 교류를 맺고 이번 김상연작가 등 외국의 유명 전문가를 초대해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김상연 작가는 "이번 강의는 컴퓨터를 활용한 인쇄의 오리엔탈리즘을 주제로 실험예술에 대한 다양한 면들을 살펴보는 자리"라며 "인쇄의 현대성이 갖는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김 작가는 중국 미술대학 회화학부 판화학과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판화에서부터 뉴미디어까지 다채로운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본전시, 2019 포스코미술관 개인전, 2016 브릴리언트 메모리얼 동행, 2006 광주비엔날레 본전시 등에 참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